

##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개념과 측정을 중심으로

## Problems of Informatization Society

조 찬 식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

Cho, Chansik

Assistant Prof., Dept of Library &amp; Information Science, Dongduck Women's Univ.

본고는 '정보화 사회'란 용어에 배제된 개념과, 방법론적 오류를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떻게 정보화 사회란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으며, 정보와 사회의 관계 및 정보화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의 개념적, 방법론적 문제점 및 부직질성을 분석 제시하고 있다.

## 1. 서론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가 상품 또는 전략적 자원으로 이용되면서 현대사회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행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란 사회의 산물로서 그 사회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한 그 사회는 정보의 생산·유통, 소비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와 사회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정보를 연구하고 그 사회 속에 정보를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자 주어진 과제이며 특히 이러한 사회와 정보와의 관계는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방법론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보와 사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 중의 하나가 '정보화 사회'이다. 국어사전(1994)에 의하면 정보화 사회란 "정보가 물품이나 에너지, 서비스 이상으로 유력한 자원이 되어 정보를 중심으로 사회, 경제가 운영되고 발전되어감" 또는 "공업제품에 가함하여 정보의 생산이 가치를 낳는 사회"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는 정보사회가 "정보, 공간기관, 즉 안기부 보안사, 검찰, 공안부 경찰 대중정보과 및 군 지휘부 등 정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라는

정의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어대사전(1994)에는 정보화 사회란 정보사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글학회판 우리말 큰사전(1992)에는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는 없다. 요컨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는 정보사회에 비하여 좋은 의미로 해석되거나, 또는 수리적으로 정보=정보화라고 귀결된다.

상기의 정보화 사회의 사전적 정의는 개념적이며 방법론적인 설명이 배제되어 있고 매우 단순하며 순수 언어학적 가치밖에는 갖질 못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의 경우 그 사용예를 찾기 힘든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는 개념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학문적 영역에서조차 정확한 개념의 구분이 없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학적 용어는 사회과학적 또는 인식론적 방법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이러한 올바른 용어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회와 정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정보와 사회의 관계를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정보화 사회'의 용어에 배제된 개념적, 방법론적 오류를 지적하고 분석하기 위해 (1)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떻게 정보화 사회란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2)정보화 사회의 관계를 사회학적 이론에 적용해 그 개념적 이해를 시도하며, (3)정보화의 개념을 근대화 측면에서 조명한 뒤, (4)정보화 사회의 개념과 방법론적인 문제점을 분석제시함으로써 정보와 사회의 관계의 이해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정보화 사회 : 언어사회학적 배경

우선 정보화 사회란 용어가 어떻게 발생되고 적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언어사회학적 고찰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보란 용어가 처음 쓰여진 것은 분명치 않으나 1950년대 이전에 쓰인 정보란 주로 군사 용어로 '전쟁 수행상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여 해석, 평가, 분석한 적의 상황이나 정황의 보고'라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란 용어는 3공화국 초기에 설립된 중앙정보부의 출현으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국군 보안사에서 근무하던 김 종필씨는 군사혁명 이후 1961년 6월 대북 방첩활동을 위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정보란 미국의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명칭을 본딴 KCIA(Korean CIA)의 Intelligence란 용어가 번역된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설립 이래 본래 맡겨진 대북 방첩활동보다는 국내외의 정치, 경제, 문화활동에 간섭하면서 많은 인권을 유린하는 권위주의적 군사정부의 대표적인 기구로 인식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보라는 개념은 매우 권위주의적, 부정적, 권력적인 의미로 사회에 인식되었다. 물론 1962년의 KORSTIC의 설립, 1966년 KIST의 설립과 더불어 '과학 기술 정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일부과학자나 연구자 등 특정인 사이에서만 그 가치가 인식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인지된 정보의 개념이란 주로 정치적인 것이었다. 1976년 기존의 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학으로의 개칭이 문교부에 의해서 거부당한 것은 이렇듯 정보가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했다는 한 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보부는 1979년 중앙정보부장에 의한 대동령 피격사건 이후 그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급기야 1980년 12월 국가안전기획부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었으며 서서히 정보란 용어가 사회일반인 사이에서 회자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마침 계속 되어온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과학기술 분야 특히 전산, 전자 분야의 발전과 맞물려 사회일반의 매일 생활에 필요한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해방'은 무제한한 것만은 아니었다. 1980년까지의 중앙정보부의 권위주의적 기능에 반동하여 정보의 사회, 경제적 가치는 정보사회로의 발전을 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용어로 대치되게 된 것이다. 현재 '정보사회'와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는 거의 같은 빈도로 쓰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거나 단순한 것이다.

이런 언어사회적 고찰은 다분히 순수언어학적이거나,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이거나 방법론적 설명이 없는 것이므로 좀 더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그 설명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 3. 정보와 사회의 이론적 틀

아직도 정보와 사회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정보란 사회의 산물이며 재화나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consensus는 이루어져 있으나 그러한 정보와 사회의 관계는 아직도 논란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와 사회와의 관계는 사회학적 이론의 틀 속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즉 사상과 분석의 시각에서 차이를 보이는 자유주의적 접근과 Marx주의적 접근에서 사회와 그 산물, 즉 정보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사상적 기반은 물론 모든 관점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발전에 대해 일정한 면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사상적 기반은 전후 사회발전의 이해에 가장 유용한 잣대로 쓰여져 왔던 것이다.

자유주의적 전통은 정보와 사회의 관계를 유토피아(utopia)와 연계시켰다. 정보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인간은 새로운 기술혁명의 잇점을 취하고 그 가운데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향상된다고 보았다. Bell (1973)에 의하면 "후기산업사회란 새로운 낙원주의(utopianism)의 도래를 말한다. 인간은 재생되고 해방되며 그들의 행위와 의식은 변화되며, 과거의 제약들은 소멸되고 마는 것이다."(p488)

반대로 Marx주의적 전통은 정보와 사회의 관계를 Orwellian의 관점에서 dystopia와 연계시켰다. Schiller (1981)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행위전체가 그러한 정보기술이나 정보체제를 분배하는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나 단체, 기구 등의 불순한 동기에 의해서 서서히 잠식해져 가는 것을 주시하였다. 정보의 복잡성과 투과성이 오히려 사회속의 인간을 통제하는 도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간략히 살펴 보았듯이 이러한 양대 사상적 기반의 논쟁은 각각 서로 불완전하며 정보와 사회의 전체적 분석의 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상적 기반은 각각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으나 어느 하나로도 정보와 사회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보와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상과 분석의 시각차이에서 오는 것이지, 정보의 내재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고로 정보와 사회의 관계는 상기의 두 가지 사상적 기반위에 같이 통합하여 볼 때 전체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상적 기반은 정보와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며 배타적일 수가 없는 것이다.

#### 4. 근대화와 정보화

정보화란 현대사회에 나타난 근대화(modernization)의 한 형태로서 근대화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근대화란 일반적으로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잇는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단순한 수치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발전이란 하나의 현상으로서 사회전반에 걸친 총체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Smelser(1968)에 의하면

"발전이란 성장의 정도에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포함하며 이러한 발전의 속도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해 가속된다. 한 사회기구의 변화는 다른 분야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급속한 경제성장은 새로운 노동력 창출을 위한 교육과 훈련기관의 변화 또는 조정을 유도하며, 다시 이런 교육, 훈련기관에서 많은 숙련되고 교육된 인력의 양산은 실업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관리를 위한 정치적, 경제적 조정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p148)

이렇듯 근대화란 연속적인 사회의 변화를 통한 사회구조 및 조직, 그리고 가치체계에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발전과 사회구조의 관계를 분석하며 Smelser(1968)는 다음과 같이 발전을 수반하는 몇가지 과정들을 지적하였다. 첫째, 기술분야에서는 단순하고 전통적인 기술에서 과학기술의 적용으로 변화되는 과정, 둘째, 농업분야에서는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에서 상업적 생산을 위한 농산물의 재배, 세제, 산업분야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힘에 이용에서 산업화 내지는 이익추구를 위한 기계의 사용, 네제, 생활환경을 농촌이나 지방에서 도시로의 이주 등이다. 저자에 의하면 이러한 근대화 과정들은 주로 동시에 일어나지만 상호촉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후의 초기 사회발전론자들은 산업화라는 단순하고 경직된 근대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경제발전의 중요성에 미루어 산업분야의 발전에 대한 이해가 곧 근대화에 대한 이해로 이어졌다. 고로 산업화와 근대화란 용어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의 사회발전론자들은 산업화라는 하나의 형(型)속에 다른 사회발전과정들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하며 그 이론을 전개시켰다.

그러나 Bell의 후기 산업사회론으로 대두된 새로운 사회발전에 대한 도전은 바로 정보가 하나의 재화 또는 전략적 자원으로 이용되면서 부터이다. 즉, 정보란 현대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에 기초가 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Bell, 1973; Machlup, 1962; Porat, 1977; Rubin, Huber & Taylor, 1986; 전 석호, 1993; 정 동열, 1993). 이러한 속성이란 (1)정보가 자원이라는 점이다. 에너지나 자본 또는 노동력 처럼 정보란 경제, 사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이 된다. (2)정보란 재화다. 정보가 경제적 또는 다른 보상으로 개인, 조직 또는 국가간에 자주 팔리고, 거래되며, 교환된다. 그리고 (3)정보란 자원을 보존하기도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효

과적인 정보의 습득과 사용은 다른 재원들을 절약하고 생산적인 이용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러므로 후기 발전론자들의 좀 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보의 개념을 사회발전의 이해에 접목시켰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만은 아니다. 이에 정보화란 정보분야의 발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보화란 단순한 정보분야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술한 Smelser의 단언처럼 정보분야의 발전이 그 사회구조 속에서 사회의 여러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질 때 진정한 정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Smelser의 근대화 과정 속에 넣어 생각해 볼 때 정보화란 그 가치가 무시되었거나 경시되었던 '정보'가 사회발전과 더불어 전략적인 재원이나 가치있는 재화로 변화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란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에 의하여 야기되는 총체적인 사회발전의 한 형태인 것이다.

#### 5. 정보화사회의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화 사회란 용어는 언어학적으로는 설명되나 그 개념과 측정의 방법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보화 사회가 정보사회와 비교해서 좋은 사회라는 개념을 상기의 정보와 사회의 관계의 이론적 틀에서 보았듯이 단편적이며 단순히 설명된다. 정보와 사회의 관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정보와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호배타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더우기 정보사회와 정보화 사회가 같다는 논리는 정보는 나쁘고 정보화는 좋다는 비약을 초래하며 그 차이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정보는 사회의 산물로 그 가치가 있으며 정보화는 사회발전의 한 형태인 것이다.

둘째, 정보와 사회의 관계의 측정의 문제이다. 구조기능주의에 기초한 후기 사회발전론자들은 정보와 사회의 관계의 측정방법을 대략 세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 첫째는 정보인력을 측정 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Machlup, 1962; OECD, 1981; Porat, 1977; Rubin, Huber & Taylor, 1986) 둘째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통한 사회가치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Bell, 1973; Jeong, 1990; Machlup, 1962; OECD, 1981; Porat, 1977; Schement & Lievrouw, 1984) 세째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초래된 사회환경에 대한 변화의 측정이다. (Lyon, 1987; Pool, 1983; Rogers, 1983; Williams, 1988)

이러한 정보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유발하고 상호작용할 때 정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화 사회란 무엇인가? 정보화란 이미 한 사회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발전의 형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화 사회란, '사회'라는 개념이 중복되는 (redundant) 측정이 불분명해지는 경우인 것이다. 즉 정보화 사회를 사회의 총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발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며 결국

은 그 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화 사회란 개념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의 정보와 사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부적합한 용어인 것이다.

## 6.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보화 사회란 용어가 어떻게 발생되었으며 정보화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의 하는 이론적 틀에서 그 관계를 고찰 하였으며 또한 정보화란 개념을 근대화 한 형태로 서 살펴 보았다. 그리고 상기의 조사를 근거로 정보화 사회의 개념 및 방법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상기의 분석과 이해가 사실이라면 정보를 연구하고 적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은 명확한 것이다. 정보와 사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부터 바로 잡고 사회의 인식을 고쳐야 할 것이다.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닌, 사회가 그 현상의 이해하는 기본 자세가 달라야 하는 것이다. Schiller(1987)는 언어의 사용이 단순한 표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정보와 사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정보사회라 하면 컴퓨터를 연상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제한된 생각이다. 정보사회란 사회 속의 많은 사람들이 정보라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들의 생산, 전달, 소비, 그리고 재생산에 직 간접으로 관여할 때 사회의 구조 및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는 사회의 총체인 것이다. 그러한 정보사회는 고대부터 존재해 왔으나 그것은 「정보」라는 가치를 부여한 것은 현대사회의 특성(산업화와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사회란 새로운 사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 사회가 「정보」라는 가치를 부여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사회의 특성인 산업화와 자본주의에 의해서 사회가 「정보」라는 개념에 의해서 재인식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회환경에 따른 가치 기준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화의 과정이었으며 또 계속 되어질 과정인 것이다.

지금까지 정보와 사회의 관계를 사회학적 또는 사회 발전론적인 관점에서 그 원리 및 측정방법 그리고 문제점들을 논하였다. 이러한 정보와 사회의 관계는 다른 여러 관점에서도 이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다양한 접근이 병행되어야만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보와 사회와의 이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분석과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보와 사회의 관계가 더 뚜렷해지는 이른바 차이와 통합의 원리(differentiation-and-integration)가 이루어질 때 더욱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국어사전(이희승 감수), 민중서림, 1994.  
 국어 대사전, 이희승 편저, 민중서림, 1994.  
 전석호, 정보사회론: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뉴미디어, 나남, 1993.  
 정동열, "정보사회 측정을 위한 사회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4, 221-261, 1993.  
 우리말 큰사전, 한글학회편, 이문각, 1992.  
 D.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1973.  
 D.Y.Jeong, A sectoral analysis of the information sector in the information economy (Ph.D. Dissertation, Rutgers U.) 1990.  
 D.Ly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society: A response to Fincham. Sociology, 21(4), 577-588, 1987.  
 F.Machlup,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NJ: Princeton U.Press, 1962.  
 OECD, Information activitie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Vol.1: Impact on employment, growth and trade. Vol.2: Background report. Paris: OECD, 1981.  
 I.S.Pool, Technologies of freedom. Cambridge, MA: Harvard U.Press, 1983.  
 M.U.Porat, The information Economy. Washintod, D.C.: Dept. of Commerce, Office of telecommunication, 1977.  
 E.M.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s. New York: Free Press, 1983.  
 M.R.Rubin, M.T.Huber & E.L.Taylor, The knowledge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Littleton, CO: Libraries Unlimited, 1986.  
 J.R.Schement & L.A.Lievrouw, A behavioral measure of information work. Telecommunication Policy, 7(1), 64-72, 1984.  
 H.I.Schiller, Who knows: Information in the age of the fortune 500. Norwood, NJ: Albex, 1981.  
 H.I.Schiller, "The information of technology: New meaning of creating cultural dependency," In K.D.Kim (Ed.) Dependency issues in Korean development. Seoul: Seoul National U.Press, 1987.  
 N.J.Smelser, Essays in sociological explan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8.  
 F.Williams,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Newbury Park, CA: Sage, 1982.